

2008 새해설계 ⑤

(사)한국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장 박영실

“포천시민 모두 영평팔경가 부를 수 있어야”

포천의 얼 계승 발전 위해 뜻있는 분들의 지원 필요

“포천의 절경 영평팔경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포천의 경기 소리극 영평팔경가를 올해로 벌써 4년째 연주를 거듭하고 무대에는 세 차례 읊려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2005년 처녀 공연 준비 때에는 잊혀져 가는 우리의 것을 발굴하여 세상에 빛나게 선보인다는 기쁨에, 그리고 2회째의 공연은 경기 소리와 연극적 요소를 한층 더 가미한다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설렘에 즐거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회째의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에는 포천의 소리극이라는 수식어에 부끄럽지 않을 영평팔경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조금은 숙연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회 한 회 공연의 횟수를 채워갈수록 한 단계씩 그리고 한 걸음씩 발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시민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3년 (사)경기소리보존회 포천시지부장으로 취임하여 40여명의 회원과 함께 포천지역에 경기소리 보존과 발전 및 주변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박영실(사진) 지부장이 영평팔경가 무대화

와 관련하여 밝힌 내용이다. 올해는 팔경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정리하여 하나의 경치를 무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로주, 선유담, 와룡암, 참학봉, 참학동 이야기, 금수정, 낙귀정지, 수월정신/화적연 등 8개 풍경이다.

포천의 얼이 담긴 수월정신을 보면 “수월정신 박순선생 영평팔경 시 남기고 사조명인 봉래선생 곳곳에 이름났네 오성대감 이항복 한음대감 이덕형 안문대신 이서구 서성선생 약봉대감 포천의 정승관서 풍류관을 벌려 봄시다 시치고 풍류 읊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이 땅의 태평성대 이만하면 어떠리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의 역사적 사실과 시대적 정신만 잘 이해해도 포천을 거의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박영실 지부장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포천시가 정책적으로 포천의 얼과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라도 영평팔경가를 집중 교육하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다는 여론이다.

박 지부장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영평팔경가를 함께 무대에 올렸지만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며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은 물론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지부장은 화적의 벼를 털어 시를 통해 영평팔경가를 말하고 있다. “화적에서 벼를 털어 금수로 술을 빚어 참학봉에 넣어 두고 와룡을 빚겨 타고 낙귀정 돌아오니 백로는 횡강하고 청학은 날아다니 선유담이 예 아니더냐.”

그동안 김수동, 박운국, 김택곤, 홍성훈, 이만구, 박경득, 정기용 교문이 지부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다고 밝히는 박 지부장은 “영평팔경가의 팔경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육병을 시작으로 1개 작품씩 시리즈로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특히 지명도 높은 배우를 초청하여 능수능란한 연기를 통해 영평팔경가가 더욱 세상에 알려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의 발전을 위해 박 지부장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봉사활동이란 무료공연을 말한다. 행사가 있거나 특별한 의미의 생일잔치가 있을 때 회원들과 함께 방문하여 공연을 하고 있다. 최근 지혜원 독거노인 생일잔치에도 참석해 공연을 선보였고 아름다운 가게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연했으며 소홀을 대보로 축제 현장에서 경기소리를 들려주었다고 한다. 아울러 지부는 교육사업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소리를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량히도 각종 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경기소리 과목을 채택하여 학생들에게 전통의 얼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박 지부장은 “앞으로 포천시이면 누구나 영평팔경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변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韓國의 선비정신 · 93

조정에 변이 있으면 마땅히 죽는 것이 신하의 도리요



리효준 한국한시협회 포천시회장

도리요.”

을사사화가 일어났을 때 유관은 좌의정이었다. 그러다가 사화에 연루되어 서천으로 귀양가던 중 운양에 이르러 사약을 받고 죽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아침을 싫어해 사람들이 감히 침략을 하지 못하였다. 그가 이조판서로 있을 때 중종이 이기(李?)를 병조판서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반대하며 유관은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기는 뇌물을 받아먹은 자의 사위입니다. 뇌물을 받은 자를 다스리는 법이 나라의 법령에 실려 있으나 이 법을 없애지 않고는 이기를 병조판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때부터 이기는 유관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한 재상이 그를 가까이 충고했다.

“윤임(尹任)이 옛날부터 대신들을 이간질한 일이 많았으니 그를 먼저 탄핵하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요.”

이는 윤원형이 특세하여 윤임을 모함하였으므로, 윤원형 일파와 손을 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유관은 태연히 웃으며 답하였다.

“대신이 되어 이미 옛 임금의 유언을 받았었는데, 조정에 변이 있으면 마땅히 죽는 것이 나의

뜻이요 그 문서를 내놓지 않고 죽음을 맞았다. 죽음을 입하자 유공찬은 조용히 편지를 써서 친어머니와 집안 사람에게 위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그가 죽자 영의 아들 유철(柳澈)을 양자로 삼았다.

유관(柳灌) 1484년(성종 15)~1545년(명종 즉위년).

본관은 문화(文化)이며 자는 관지(灌之). 호는 송암(松庵)이다. 1507년(중종 2) 생원시에 합격하고 같은 해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후 정언·지평·경기도 도사·장령을 거쳐 1519년 7월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사헌부 집의로 좌광조 일파를 공격하였다. 그 후 여러 벼슬을 거쳐 예조판서, 우참찬, 대사헌 이조판서 등을 차례로 지냈다. 이조판서로 있을 때 간신인 병조판서 이기의 비행을 문체삼았는데, 이때문에 이기의 모함을 받았다.

인종이 즉위한 후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명종이 즉위한 후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이기의 모함으로 윤임, 윤인숙 등과 함께 삼봉(三冢)으로 몰려 서천으로 귀양가던 도중 운양에 이르러 사사(賜死)되었다.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예/술/칼/림

가위 바위 보

세상에 '꾼'도 있고 '쟁이'도 있다. 사람은 흠으로부터 피와 땀을 얻으며, 하늘로 부터는 영생(永生)의 약속을 받아 내려 부르짖는다. 그러다 이 세상 마지막 호흡으로 종을 울릴 때 물질은 세상에 놓고, 육신은 흠에 더한다는 사실을 대개는 부인하지 않는다. “죽음처럼 가장 공정한 분배는 없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다.

대지는 사람의 편에서 인간을 위해 하늘과 협력한다. 대지는 썩는 자의 뉘이다 했다. 이 엄청난 환란의 땅에서 인간은 과연 어떤 패거리로 창과 방패와 깃발로 함성을 질 것인가! 과연 무엇을 위해 인간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부모 한 장난으로 인간의 피가 대지를 얼룩지게 하지는 않았나! 이 유없이 땅이 반항을 할 때 반드시 하늘의 간섭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늘의 중요한 관심사는 인간이며, 대지는 하늘이 신임이기 때문이다.

글쟁이(문인)가 말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쟁이의 삶의 이부자리는 세상이며 하늘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빛과 그림자와 역사의 얼이 글쟁이가 책임져야 할 숙명 이기에 그렇다. 인간의 대지는 말하기도 하고 노래도 부를 줄 안다.

“꾼”이 빵과 영리와 구경을 위해서 목청을 높일 때 “쟁이”는 삶과 독을 짓는 쟁이이라 그러하고, ‘환쟁이’도 그러하고, 무

릇 ‘글쟁이’도 진실한 ‘쟁이’가 되어야 한다. 그 중에 더욱 글쟁이는 무엇을 위해서 고민해야 하는가. 마음속 욕망을 채우려 권력과 부유(富裕) 앞에서 아침과 가문의 춤만을 추지는 않았는가. 어제는 어떻게 오늘을 통하여 글로써 구제와 내지는 확인해 갈 때, 그것이 예술적 창조작업이며 생명문화의 울림인 것이다. 이때 예술적 극치는 어떠한 목적으로든 도전과 지배의 공식을 이성적 사고만으로 불러들인다거나 사람의 보편적 이념방식으로만 풀이될 수 없는 한계를 간파해 주는 양념이다. 언어는 감성의 공명이며 글은 가슴과 가슴을 잇는 피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곧 예술은 감성의 씨앗이며 문화의 꽃이다.

바로 이 시대에 예술인이 추구할 유토피아는 사람을 다스리는 일과 재물을 탐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과정을 꿈꾸어 따져 묻고 따뜻한 가슴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인생의 무대에서 진정한 승자는 아무도 없다.

다만 예술인이 영원할 뿐이다.



안익수 시인 제3의문학주간

뮤지컬 이야기

전속 배우들의 비애와 주디 갈랜드 (Judy Garland, 1922~1969)

요즘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희극장작을 물어보면 연예인을 단연 1, 2위로 꼽는다. 연극, 영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방송, 케이블TV 등이 번성하면서 연예인들에 대한 환상이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종 연예인을 만들어준다고 사칭해서 돈을 뜯어낸 다음 잠적해 버리는 사기 연예기획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성 연예기획사 아니라 신인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만 취급해서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주는 기획사들의 횡포도 문제가 되고 있다. 연예인들은 바쁜 스케줄을 소화해내기 위해 하루 24시간 전극을 돌아다녀야 할 때가 많고 그로인해 몸이 상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주까지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무리한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도로를 질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과속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연예인들도 많았다. 일부 연예인 기획사들의 횡포와 함께 화려한 연예인들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 과연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1940년대 할리우드는 영화스튜디오 전속 시스템으로 인해 배우들 모두가 영화사 소속으로 활동해야만 했다. 따라서 아무리 시골

출신 어릴뿐 신인이라 하더라도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스타델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당시 할리우드 시스템이었다. 반면에 영화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과로와 스트레스로 파멸하는 배우들도 많았는데 그 대표적 인 배우가 주디 갈랜드(Judy Garland)였다. 주디 갈랜드는 1939년 <오즈의 마법사>로 스타덤에 오른 이래 1940년대에는 할리우드의 대표적 뮤지컬 배우로 성장했으며 MGM 영화사의 가장 돈벌이가 되는 벵커를 스타였다. 주디 갈랜드가 출연한 1940년대 대표적인 뮤지컬로는 <포미 언 마이 길(For Me and My Gal, 1942)> <미트 미 인 세인트루이스(Meet Me in St. Louis, 1944)> <해비 걸(The Harvey Girls, 1946)> <이스터 퍼레이드(Easter Parade, 1948)> 등이 있는데 모두가 박스오피스 대히트를 기록했던 뮤지컬들이었다. 특히 1944년에 만들어진 <미트 미 인 세인트루이스(Meet Me in St. Louis)>는 주디 갈랜드의 매력 이 가장 돋보인 영화였다. 가족과 같이 작품하는 과도한 영화촬영 스케줄과 홍보 스케줄로 인해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으며 결국 48세의 나이에 약물과용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디 갈랜드는 이러한 할리우드의 비정한 영화사 전속 시스템을 주제로 한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주디 갈랜드의 대표작이기도 한 뮤지컬 영화가 바로 <스타 탄생(A Star is Born, 1954, 워너 브라더스)>이다.

1939년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스케줄-한편의 영화가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 영화의 슈팅에 들어가는-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디 갈랜드는 끊임없이 각성제를 복용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수면용으로 바르비투르산염을 과도하게 복용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스무 살이 되기 전부터 시작한 약물복용은 후일 약물중독으로 발전했고 정신질환과 자살시도를 유도했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스 오피스 대히트, 성공적인 음반 레코딩, 여러 번의 수상경력, 이 비평가들의 칭송 등에도 불구하고 주디 갈랜드의 육체는 이미 약물로 파괴되고 있었으며 신념 상실로 인한 정신적인 병까지 얻기에 이르렀다. 1940년대 중반부터 주디 갈랜드는 불면증 해소를 위해 점차 모르핀을 함유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악화된 편두통과 신경증세가 시작되었는데 결국 영화 촬영 스케줄을 자주 핑크 내면서 영화사와 갈등을 빚고 4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몇 편의 영화에서는 중도하차하기도 했다. <브로드웨이의 바블리(The Barkleys of Broadway, 1949)>

와 <애니 갓 유어 건 (Annie Get Your Gun, 1950)> 등이 중도하차한 뮤지컬인데 결국 MGM영화사는 이미 몸과 마음이 파헤친 주디 갈랜드를 포기하고 전속계약을 풀어주기에 이른다. 주디 갈랜드의 기구하고 짧은 일생은 우리 연예계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오늘날 일부이긴 하겠지만 돈만을 생각하는 연예 기획사의 횡포가 주디 갈랜드처럼 재능 있는 연예인들을 파멸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일이다. 최근 신성훈, 성시경 등이 불러 인기를 모았던 캐롤 “해브 유어셀프 어 메리 리틀 크리스마스(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는 1944년에 개봉된 <미트 미 인 세인트루이스(Meet Me in St. Louis)>에서 주디 갈랜드가 처음에도 불렀던 노래였다. 그 누구보다 주디 갈랜드의 노래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이 노래의 가사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작고 예쁜 크리스마스를 보내 잠시 동안만이라도 모든 트러블을 사라지게 하고픈 주디 갈랜드의 간절한 소망 때문이 아닐까 한다.



윤우영 (대전대 교수, 연출가)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228)

3.1운동과 33인② 「권동진」님

1. 독립운동은 대중화하여야 할 것.
2. 독립운동은 일원화하여야 할 것.
3. 독립운동은 비폭력으로 할 것.
이 세 가지 원칙은 내 고향 포천 출신 33인 중, 한 분인 권동진님과 오세창님이 정하고 1919년 1월 20일 천도교주 손병희님에게 제시한 3·1운동의 대원칙이다. 내 고향 포천 출신 3·1운동의 33인의 한 분인 권동진님은 호가 '애당(愛堂)' '우당(憂堂)'이며 도호(道號)는 '실암(實巖)'.인세 포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다.

19세기 사관양성소를 졸업하고 육군 초관(지금의 사관학교 출신 위관급)으로 3년 근무 후, 함안군수를 1년 역임하였다. 그 후, 거문도 첨사로 재직 당시 1884년 갑신정변 후, 손병희 오세창 등과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귀국 대한 협회 부회장이 되어 개화운동을 하였다.
동경 망명 당시 천도교주 손병희와 회합 토론하였던 인연으로 천도교에 입교하여 도사(道師)가 되었다.
1918년 12월 세계정세를 보고 한민족도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입각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자결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3·1운동의 독립선언서 제2의 국훈장 복장이 수여되었다. 남은 대한제국 사관학교 출신이었으며 지방 수령이었으며 3·1운동 및 신간회를 통한 대한독립운동의 주역이었다. 3·1독립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포천 출신의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이였으며 개화사상이 투철한 민족운동가였다. 권동진님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어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행복찬 오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으로 참여하였다. 1927년 2월 15일 신간회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광우학생운동 당시 서울 종로, 안국동 로타리, 단상사 앞에서 민족대회를 개최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누설되어 신간회 간부들 모두 피체되어 1년형을 선고 받았다.

8·15 조국이 해방되자 <신한민족당(新韓民族黨)> 당수, 민족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1962년 건국훈장 복장이 수여되었다. 남은 대한제국 사관학교 출신이었으며 지방 수령이었으며 3·1운동 및 신간회를 통한 대한독립운동의 주역이었다. 3·1독립운동의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포천 출신의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이였으며 개화사상이 투철한 민족운동가였다. 권동진님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피어낸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의 오늘이 행복찬 오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초대 漢詩

元宵節情景(원소절정경)



이효준 포천한시사 대표

上元望月出於東(상원망월출어동) 國泰民安願歲豐(국태민안원세풍)
정월의 보름달이 동쪽에서 뜨니 국태민안과 세풍을 원하노라.
燈燭輝煌欣老丈(등촉휘煌欣老丈) 紙蕪深瀾樂兒童(지우深瀾樂兒童)
등촉을 밝힐 노인이 기뻐하고 지연이 찬란하게 날으니 어린이가 기뻐하네.
香蕪旨味傳來習(향소지미전래습) 爆竹華炎古代風(폭죽화염고대풍)
향기로운 나물 맛은 미숙이 전해는 것이고 폭죽이 빛나는 것은 고대풍미로다.
良俗裕倫方盛際(양속유륜방성계) 正朝大地瑞光通(정조대지서광통)
양속과 이륜을 많이 지키니 정조대지에는 서광이 통하노라.